

융자 뜻

어학사전에 '융자'란 단어를 서치해보면 '자금을 융통하는 것, 또는 그 자금'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다, 융자를 신청하다. 등으로 쓰이는데 대출과 뜻이 거의 비슷하지만 융자는 대출보다 더 넓은 의미를 뜻하는 단어.

대출은 돈을 빌리거나 물건 등을 빌리는 것을 가르키는 좁은 의미라면 융자는 대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상위 개념입니다.

융자란 자금을 융통하는 포괄적인 뜻으로 주로 담보가 걸려있는 대출을 말할 때 많이 쓰입니다. '담보를 걸고 돈을 빌려 융통할 때' 주로 많이 쓰임.

(예시)

주택을 담보로 융자금(=주택담보대출)을 받다.

집값의 1/3은 주택담보융자금으로 냈다.

※ 여신, 대출 ⊂ 융자.

여신의 정의

여신(與信) 과 대출(貸出)은 금융기관이 조달한 자금을 필요한 자에게 직접 빌려주는 것이라면 동일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으로 대출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 개인여신, 개인대출, 기업여신, 기업대출과 같이 여신과 대출을 혼용하는 것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신과 대출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은 기업 등에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만 여신은 대출의 의미뿐 아니라 “신용을 빌려주는 지급보증(신용공여투자), 외국환 거래에서 발생하는 여신, 무신용장방식의 수출환어음 매입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신이라 함은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대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2,3 금융권(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는 대출 혹은 융자라는 단어만을 사용하며 여신이라는 단어는 현재 제 1 금융권에서만 사용합니다. 즉, 제 1금융권에서는 대출, 여신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것은 대출입니다.